

IMAGINING A NEW WAY FORWARD

Leadership, Identity, and Miss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의 리더십, 정체성, 그리고 선교



Mon. April 13th - Wed. April 15th, 2026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PLENARY SPEAKERS

Roger S. Nam, Ph.D.
Professor of Hebrew Bible, Candler School of Theology, Emory University

Soojin Chung, Ph.D.
Director,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David Chao, Ph.D.
Director, Center for Asian American Christianit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Hosted by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 English Ministry

In Partnership with
Center for Asian American Christianit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Co-sponsored by
NCKPC Jubilee Committee
Northeastern Korean Presbyterian Council



www.eventcreate.com/e/kcboston2026
For Information : kcbweb70@gmail.com

초대의 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보스톤한인교회 2026 심포지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충실히 상상하는 시간에
미국 전역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분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소중한 교류와 영적 회복, 그리고 비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심포지엄 대면 참석 등록 링크 (여기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석 등록 링크

심포지엄 웹사이트



Contact us: kcbweb70@gmail.com

기조 연설자

과거를 성찰하고 배우기

정수진 교수 Dr. Soojin Chung (역사학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현재를 성찰하기

데이비드 차오 박사 Dr. David Chao (신학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믿음으로 미래를 그리기

로저 S. 남 교수 Dr. Roger S. Nam (구약학자)
에모리 대학교



강의 제목 및 초록

보스톤한인교회 심포지엄 2026

새로운 길을 상상하기 -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의 리더십, 정체성, 그리고 선교 -

4/13-15, 2026

심포지엄 스케줄

Time	4/13 월요일	4/14 화요일	4/15 수요일
9 – 12pm	<p>세션 II: 9 – 10:30am “Three Worlds, One Church: Rethinking Leadership, Identity, and Mission”</p> <p>기조 연설자: 데이비드 차오 박사,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아시아계 미국인 기독교 연구 센터</p> <p>..... Q & A</p> <p>패널 토론: 10:30am – 12pm</p> <p>기조 연설자 및 한인 목회자 사회자: 조은일 데이비드 교수, 보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 영적 돌봄 및 상담학과 조교수</p>	<p>토론 시간 또는 그룹별 회의: 9 – 11am</p>	
12 – 1pm		<p>점심 식사</p>	<p>점심 식사</p>
1-4pm		<p>자유시간/셀프 투어시간:</p>	<p>해산</p>
4-5:30pm		<p>등록</p>	
5:30 – 7pm	<p>환영 만찬</p>	<p>저녁 식사</p>	
7 – 8:30pm	<p>Session I: “Korean American Churches’ Belonging, Identity, and Agency: A Lesson from History”</p> <p>기조 연설자: 정수진 교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해외선교연구센터 소장</p> <p>..... Q & A</p>	<p>Session III: “Rethinking Community: A Surprising Lesson for the Korean American Church”</p> <p>기조 연설자: 로저 S. 남 교수, 에모리 대학교 캔들러 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p> <p>..... Q & A</p>	
8:30- 9pm	<p>8:30 – 8:45pm Message from Rev. Jihyun Oh, The Stated Clerk of the GA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Presbyterian Life and Witness</p>	<p>8:30 – 9pm Small Group Discussion</p>	

세션 I	
강연자	정수진 박사 (Dr. Soojin Chung)
제목	한인 교회의 소속감, 정체성, 그리고 주체성: 역사에서 얻는 교훈
초록	1 차 한인 이주 물결 당시 기독교와 이주민 민족주의가 결합하여 형성된 시너지는 한인 교회에 해방감과 소속감을 부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본 발표에서 필자는 기독교가 고향을 떠난 타지에서 민족주의적 정서를 함양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논하고자 합니다. 반대로, 이주민 민족주의는 1900년대 초반 당시 지배적이었던 백인 중심의 미국 기독교와는 차별화되는, 한인 이주민의 민족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상황화된 기독교가 확산되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인 이주민 교회는 이주민들이 낯선 타지에서 자신의 소속감, 정체성, 그리고 주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보루로서 기능했습니다.
세션 II	
강연자	데이비드 차오 박사 (Dr. David Chao)
제목	세 가지 세상, 하나의 교회: 리더십, 정체성, 그리고 선교를 다시 생각하다
초록	이주, 인종화, 그리고 디지털 생활로 형성된 여러 세대에 걸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인 기독교인들의 생생한 구술 역사 인터뷰를 바탕으로, 본 발표는 서로 구별되면서도 긴밀히 연결된 세 가지 세상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고, 느껴지고, 전수되는지를 탐구합니다. 1세대는 이주 후 삶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2세대는 영어 사용 환경이자 인종적으로 복잡다단한 환경 속에서 정체성, 소속감, 그리고 은혜의 문제와 씨름합니다. 젊은 세대는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의 임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발견해야 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신앙의 길을 모색합니다. 본 강연은 신학을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다루는 대신, 교리를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삶의 실제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섭리는 단지 하나의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은혜는 수치심의 치유와 소속감을 향한 탐구 속에서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주의가 분산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선물로 다가옵니다. 이번 세션은 목회자, 리더, 그리고 성도들이 각자의 공동체 내 여러 세대에 걸친 영적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언어, 감정, 그리고 일상의 경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현장임을 주목하며, 사역을 위한 신선한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본 강연은 변화하는 한인 이민자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욱 신실하게 삶으로 구현해 낼 수 있을지 교회가 함께 분별하도록 초대합니다.
Session III	
강연자	로저 S. 남 박사 (Dr. Roger S. Nam)
제목	공동체를 다시 생각하다: 한인 교회에 선사하는 놀라운 교훈
초록	본 발표는 한인 교회가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난 포로 귀환 후의 상황으로부터 공동체에 관한 놀라운 교훈 하나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진정한 공동체적 삶은 모든 갈등을 해소하거나 이상적인 결속력을 달성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벗어가는 '공유된 실천들'을 통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여러 세대가 어우러진 이민자 공동체는 토라(율법서)의 공개 낭독을 중심으로 모여들며, 기쁨과 결단으로 하나 되어 응답합니다. 동시에 이성경적 서사는 공동체가 결코 완벽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즉, 긴장 관계, 세대 간의 과제, 그리고 끊임없는 고군분투의 과정들 또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필수적인 일부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한인 교회에 이는 하나의 해방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즉, 공동체는 지속되는 긴장 속에서도 공유된 참여와 신실한 실천을 통해 성장하고 변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